



진시영



이이남



손봉재

이이남, 홍콩 콰이 평민 갤러리·베를린·런던 등  
 손봉재, 뮌헨 마이클숄츠갤러리·중 쟌다이 미술관  
 송필용, 이화익갤러리  
 진시영, 진화랑  
 김상연, 마이클 숄츠 갤러리  
 이설제, 디츠바키갤러리



김성대 작 '금강산-靑山白石'

### 후학 양성에 작품 활동까지 '靑'전 29일까지 국윤미술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쉬지 않고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국윤미술관은 12일부터 29일까지 미술 교사와 교육 전문 직 종사자를 초대해 '靑'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현 서강고 교사, 장금만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원익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임수준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신찬호 광덕고 교사, 홍기호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김성대 광산중 교사, 김형태 광주예고 교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가들의 활동영역만큼이나 유화, 수묵담채, 프린트 등 작품 장르도 다양하다. 이들 작가들은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개인전과 그룹전을 여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3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국내외서 러브콜... 광주 출신 전속작가들을 주목하라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유명 상업 갤러리 전속 작가라는 타이틀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상업 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파워를 통해 중앙이나 해외무대 진출 기회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 갤러리들은 작가의 창작비 지원부터 판매까지 책임진다. 작가들의 개인전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미디어 홍보, 광고, 전시회 VIP 초청까지 세부적인 사안을 갤러리가 도맡아 지원한다.

지난 2006~2008년 미술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외 유명 갤러리와 전속계약을 맺은 광주지역 작가는 상당수에 달했다. 최근에는 미술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화단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 지역 작가들은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실재없이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는 홍콩 콰이 평민 아트 갤러리와 지난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씨의 작품을 보고 반한 콰이 평민 갤러리 대표 캐서린 콰이씨가 러브콜을 보낸

케이스다. 이 갤러리는 장샤오강도 전속 작가로 활동했던 곳이다.

캐서린 콰이 대표는 지난 2월 홍콩 유명 컬렉터들을 데리고 광주를 방문해 문해 이씨의 스튜디오와 고향인 담양을 찾은 정도로 이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씨는 오는 5월 홍콩 콰이 평민 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개인전을 연다. 이 밖에도 이씨는 북경, 베를린, 런던, 인도,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등에 전속갤러리를 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 잇달아 초대되면서 스타작가로 자리매김한 손봉재씨는 독일 마이클 숄츠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갤러리의 도움을 받아 해마다 뮌헨과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트페어와 그룹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인전을 준비중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고 현대미술관 중 하나인 상하이 쟌다이미술관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5·7·9월에는 중국에서 개인전 열 예정이다. 최근에는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갤러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동양적인 주제를 서양화풍으로 선보이고 있는 송필용씨도 10여 년째 서울 이화익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동중이다. 이화익갤러리를 통해 중앙 무대와 아트페어에 작품을 선보이면서 컬렉터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이화익갤러리에서 '달빛 매화'전을 열기도 했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도 지난해 진화랑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앙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최근 국내 유명 상업갤러리들이 어려운 국내 미술경기를 반영해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는 지난해 말 진화랑에서 열린 개인전과 최근 대명 비발디파크 내 갤러리 비바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통해 컬렉터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마이클 숄츠 갤러리 전속작가 세오(본명 서수경), 서울 마이클 숄츠 갤러리 전속작가 김상연, 일본 유명 화랑인 츠바키갤러리 전속의 사진작가 이설제씨 등도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 광주지역에는 작가들의 창작

### 화랑협회 가입 갤러리 광주지역 2곳 불과 지역작가 역량 키울 기회 더 많아져야

을 지원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갤러리는 없다. 국내 유명 상업갤러리협회인 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된 갤러리도 2곳에 불과하다.

이 두 갤러리는 협회 차원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아트페어를 오가며 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있다. 화랑협회에 가입된 화랑이 100여 곳에 이르는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대구 17곳, 부산 13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 작가는 "젊은 작가들은 누구나 유명 화랑의 전속작가를 꿈꾸지만 상업성에 매몰돼 작가들과의 노력에 계약을 강요하는 연에 기획사와 같은 갤러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송필용 작 '생명의 순환 수류회개'

## "10년, 음악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메타필로스 첼리스트' 호스피스 환우 기금 마련... 오늘 금호아트홀

올해로 창단 10년을 맞는 첼로 앙상블 '메타필로스 첼리스트'는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연주단체다. 지금까지 아이티 재단, 서해안

기름유출 복구지원, 대구 지하철 참사, 필리핀 산사태 이재민, 소아 암 환우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온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는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을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를 마련했다.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회에서는 팜송 'You raise me up', 포퍼의 '콘서트 폴로네이즈 작품 57'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제 5번'을 소프라노 이승희씨와 협연한다.

2002년 결성된 '메타필로스 첼리스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첼리스트들'이란 뜻으로 광주시향

첼로 수석인 박문경씨를 리더로 김희경·김현정·석민정·윤소희·백미정·박효은·봉수경·윤소현·이후성·유순아·정아름·김태은·김민수 등 14명의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 유병급씨로 구성돼 있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